

여수찾은 孫 “安 꺾을 것”...安 전남대 찾아 4차산업 혁명 교감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호남 쟁탈전’ 가열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 의당과의 통합 선언과 함께 당내 경선 참여를 밝히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의 역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 나선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경선에 새롭게 합류한 손 의장은 야권의 텃밭이자 사실상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으로 당원의 절반 정도가 집중된 호남에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호남이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다, 호남 민심이 그동안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만큼 경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 의장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의 호남에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도 지난달 설 연휴 이전 호남을 찾는데 이어 오는 13~14일 호남을 다시 찾는다.

경선을 앞둔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혁명 방안으로 내세운 학제개편안을 띄우는데 발 벗고 나서며 정책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8일 차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7명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를 열어 학제개편안의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호남민심이 경선 향배 좌우”

孫 전복~전남 광복행보

安 13~14일 집중 공략 나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학제개편안을 띄우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아젠다 선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조만간 안보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정책 등을 내놓으며 차별화된 정책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13일 광주에서 광주전남인문인포럼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뒤 전남대와 조선대를 잇따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원로 목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종교계와의 교감도 넓혀가며 호남에서의 지지율 향상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손 의장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선언과 함께 곧바로 호남을 찾아 광복행보를 벌이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손 의장 또한 호남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전날 전북에서 8일 전남으로 발길을 옮긴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여수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득권과 패권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하는 개혁 연합 세력이 민주당의 대세론을 반드시 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제1당인 민주당이 대세를 이루고 문재인 후보가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나머지 세력 가운데 문재인 의 기득권과 패권에 반대하는 세력,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동의하는 개혁세력이 연합정부의 양 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당과 통합을 계기로 개혁세력 연대의 큰 출발인 만큼 민주당의 문재인 대세론을 반드시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선 문제와 관련, “경선을 생각하고 통합을 결정했다. 안 전 대표를 능히 이길 자신이 있다”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경험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또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육제도의 국가적 책임, 교육 개혁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민주권개혁회의 전남 동부권 결성대회에 참석해 전남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섰다. 9일에는 야권 심상부인 광주로 이동해 대선 토론회와 나주 농민과의 간담회, 지역 재래시장 등을 둘러 바다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野 특검 기간 연장 공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 차원 공조방안 논의 등을 위한 야 3당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와 통합 국민의당 당명 그대로 유지

국민의당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통합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명을 개정하지 않기로 손 의장과 합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손 의장 측에서 명분을 위해 당명 개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누리당도 당명 개정 검토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이 창당돼 1년도 채 안 된 데다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당명을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고 손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에 손 의장도 그러한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손 의장 측은 통합 선언 전 국민주권개혁회의의 키워드인 ‘주권’을 당명에 넣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을 위주로 당명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측 특검 압박하며 시간벌기...“빨라야 내주 대면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감사팀의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9일 대면조사 연기, 추후 일정 협의’ 입장을 특검 측에 공식 통보했다.

원활한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 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하고 비공개를 약속한 대면조사

일정마저도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 측은 8일 “금주 내 대면조사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다. 조사는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 일정 유출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면조사를 앞두고 특검과 기싸움을 벌여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면조사가 지연될수록 박 대통령은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특검이 9일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뇌물죄’ 의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대면조사 이후 박 대통령이 현재에 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의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

18세기 영 귀족처럼...미술여행 떠나볼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4) 그랜드 투어

미술전공자나 애호가들에게 올해는 몹시도 마음 설레는 한해일 것 같다. 2017년은 매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를 뜻하는 ‘비엔날레’라는 용어의 원조 격인 베니스비엔날레가 개최되고, 매 5년 마다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 매 10년마다 문을 여는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등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륙 안에서 펼쳐지는 굵직한 미술행사에서 일정 조율만 잘하면 한 걸음에 안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럽

에서도 이른바, ‘그랜드 투어(Grand Tour)’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의 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행사나 미술전문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한 예술여행을 위한 ‘그랜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람객을 모으는가 하면 주변에서도 큰 맘 먹고 먼 길 떠날 준비를 하는 이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린다.

그랜드 투어는 원래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귀족 가문이나 부유층 자제들이 고대 문명의 본산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돌아보며 문물을 익히는 여행을 뜻했다. 귀족 자녀들을 위해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애덤 스미스 등 수많은 지성이 동행 교사로 활약했으며, 로마는 필수 코스였고, 이탈리아의 예술품을 갖고 귀국하면서 저마다의 심미안을 뽐내기도 했다. 특히 여행지의 낭만과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 전방 좋은 고대 로마와 베니스 등



‘고대 로마 풍경 화랑’

의 풍경을 화가의 상상에 의해 자유롭게 재구성한 ‘카프리치오(capriccio)’라는 회화양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카프리치오’의 대가로 알려진 조반니 파올로 판니니(1691~1765)의 작품 ‘고대 로마 풍경 화랑’(1759년 작)은 고대 로마 유적지나 베니스의 풍광을 담은 수많은 회화들의 조합을 진열한 화랑을 그린 작품이다. 당시의 미술애호가들은 작품 속 그림들을 보면서, 그 그림들과 함께 탄생했을 수많은 컬렉션들을 상상하는 즐거움도 누렸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